

名實相符한 알법세상을 위하여

백 문 흠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언어를 사용하는 특별한 생명체이다.

사람은 태어나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으면서 개체로 특정되고, 사회화 과정을 거쳐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된다. 이 과정에서 언어를 통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고, 개체로서의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일반적 역할을 위한 인격의 형성이 이루어진다.

특정한 사회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의 침해로부터 집단구성원들을 보호하고 미래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규칙, 즉 법을 제정하고 집단구성원들이 준수하게 한다.

한편, 우리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유가에서는 보이는 세상에 대하여 정명론(正名論)을 주장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도교와 불교에서는 비명(非名)과 무명(無名)을 이야기한다.

정명사상은 사물이나 대상을 묘사함에 있어서 실체의 특성이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도록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든다면 漢字의 상형문자인 山이나 水처럼 사물의 형상이나 작용을 묘사하여 직관적으로 다른 사물과 구분하게 하는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 제1장에서는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이라고 한다. 도를 도로 부를 수 있다면 항상 그러한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항상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라는 뜻이다. 즉 상도(진정한 도)와 상명(진정한 이름)은 이름으로 불러 고정되는 순간 그 본체와 다른 것이 된다는 의미로 모든 이름은 실체의 특성을 일부만 표현한 것으로서 진정한 실체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非名論을 주장한다.

불교에서는 “諸行無常. 諸法無我”를 이야기한다, 세상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自性を 가지지 아니한다 라는 의미이다. 즉, “세상만물은 모두 텅빈 空한 것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다른 사물과 구분되는 이름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를 “無名”이라고 하고 독립된 자아가 없음에도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신의 고유한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여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無明” 즉 밝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법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공동체의 최소한의 약속인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법의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학에게 접시에 담긴 스프를 주고 여우에게 호리병에 든 고기를 먹으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기 쉬운 법은 사회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뿐만 아니라 표현의 명확성이 법령심사의 요체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에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님의 꽃)

이름과 실체가 서로 부합되는 아름다운 법령문화가 꽃처럼 피어나길 기원한다.